

나눔터

1999 · 2 · 계간 · 제 29호

● 퍼낸날-일천구백구십구년 이월일일 ● 퍼낸곳-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퍼낸이-최영애 ● 만든이-박미숙 ● 편집-태성커뮤니케이션 TEL 2285-6846~8

Street Performance

십대매매춘 근절을 위한 거리 퍼포먼스

한 편의 시로 여는 일천구백구십구년
눈물의 밤(김정란) 2

신년기획

희망의 울림이 될 구십구년을 열며(최영애) 3

상담소에 바칩니다

8년의 역사를 품어온 새로운 도약을... (정강자) 4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고평법'

'남녀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적용방향(이미경) 7

여기는 상담실

1998년도 상담현황분석(조종신) 8

삶 이야기

상담소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11

성문화 원기

대중음악과 여성(황옥주) 12

나눔터 게시판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람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02-576-5450

눈물의 방

김정란

눈물 속으로 들어가 봐
거기 방이 있어

작고 작은 방

그 방에서 시는 일은
조금 चु고
조금 쓸쓸하고
그리고 많이 아파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방바닥에
벽에
천장에
숨겨져 있는
나지막한 속삭임소리가 들려

아프니? 많이 아프니?
나도 아파 하지만
상처가 얼얼인 걸 모르겠니?
우리가 서로서로 비추어보는 얼굴
네가 나의 천사가
내가 너의 천사가 되게 하는 얼굴

조금 더 오래 살다보면
그 방이 무수히 겹쳐져 있다는 걸 알게 돼
늘 너의 아픔을 향해
지성으로 흔들리며
생겨나고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방

눈물 속으로 들어가 봐
거기 방이 있어

크고 큰 방

이 詩는 시인 김정란 선생님께서 지난 한 해의 어둠을 거둬내고 밝은 새 날의 시작을 위해 저희 상담소에 보내주신 글입니다.

희망의 울림이 될 구십구년을 열며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지난 한해는 IMF 시대라는 기막힌 상황 아래 참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 고통으로 힘겨웠던 해였다. 특히 여성들은 구조조정에서 일순위로 해고 당하고 수많은 여성가장들의 생계가 위협당하며 가정폭력, 성폭력이 증가하는 등 안전과 생계라는 기본적 토대가 흔들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여성단체들 역시 이러한 대책활동으로 가정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성실업자 및 여성가장 지원대책을 수립, 지원하는 활동 등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였다.

99년 올해 역시 지난해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할뿐 아니라 더 증폭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올해 여성계의 활동 역시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주류화를 위한 활동과 더불어 여성실업의 문제, 여성 폭력의 문제가 중심과제로 설정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골간으로 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역시 여성계의 주요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99년 한해는 이러한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 동시에 정보화, 세계화, 혹은 3F(Female, Feeling, Fiction) 시대로 명명되는 21세기를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작업을 본격

적으로 준비하는 해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들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을 선별하고 필수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한 기초작업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올해의 과제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상담소에서는 그동안의 성폭력 대책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재점검하고 개소 8년째 접어드는 올해 사업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영역을 심화하고 연계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사업, 또 하나는 성폭력을 끊임없이 조장·강화시키는 우리사회 남성중심적 성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새로운 성문화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피해자 집단 상담, 어린이 피해자 부모 집단 상담 등을 체계화하여 개인적 지지망의 폭을 가족집단으로 확대하고, 개소 8주년 기념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최초로 의료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개최, 경찰과의 간담회,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매매춘의 문제를 청소년뿐 아니라 이를 유지시키는 남성고객, 남성문화에 대한 연구, 교육,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특수집단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방법론을 개발·실시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올해 상담소가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이다. 올해부터 시행될 성희롱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성폭력 대책 운동의 폭을 대증적으로 넓혀가는 것 역시 올해의 과제이다.

그동안 상담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와 올해 활동에도 더 큰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와 건강한 성문화 창출을 위해 98년 새로 발족한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와 <성평등교육문화센터>의 구체적인 올해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성폭력문제연구소

1999년 연구소 사업의 기획 주제는 직장내 성희롱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성문화 만들기로 함축된다.

- ▶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연구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 지침서 발간을 준비하며 2월말에 나올 예정이다. 지침서는 사업주, 관리자, 교육담당자,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관련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소는 직장 남성이 10대 청소년 성에 어떻게, 얼마나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조사·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6월경 직장 남성의 성의식 및 성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될 것이다.
- ▶ 대상과 교육 환경에 따른 세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강남구청 등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여자상업고등학교 대상의 성교육을 지속시키려고 한다.
- ▶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통하여 여성의 성적 지위,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 성적 주체성 문제 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서있는 지형도를 그려보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의도에서 2월말경 『성문화 들여다보기와 내다보기 : 섹슈얼리티 분석』(가제, 도서출판 동녘)을 발간할 예정이다.
- ▶ 어린이성폭력 피해로부터 살아남은 성인여성을 위한 치유과정에 대한 생생한 자료인 [Courage to Heal]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지난해 11월 19일에 발족한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에서는 미디어에 나타난 '남성중심적 성의식 및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것이다. TV와 만화에 왜곡되게 재현되는 성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니터 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적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지금까지 업숙주의 혹은 도덕주의적으로만 일관되어 온 우리 사회의 편협한 성담론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본 상담소에서 축적해온 성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디어의 성차별적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모습, 성과 관련된 재현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며, 건강한 미디어 문화 더 나아가서 건강한 성문화 창출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성평등교육문화센터는 성폭력문제연구소, 상담파트와 공조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함으로써 상담소 내 파트간 유기적 공조 체계를 만들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5월에 상담소 개소 8주년 기념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주관한다. 상담파트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후유증 상담을 위한 스터디와 기획을 공조하여 10월에 전국성폭력상담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후유증 상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소와 공조하여 인간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새로운 성교육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성교육 교사연수, 학교 성교육 출강 등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성평등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사업과 이벤트 등을 기획하여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의식있는 사람들의 휴먼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됨으로써 여기서 부터 바로 (here and now) 새로운 문화의 2000년대를 준비하고자 한다. ☺

8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비가 내리던 몇 일전 오후 여의도 한 빌딩 강당에서는 최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중 직장내 성희롱 관련 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이 있게 한 전서울대조교 변호사들, 공대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토론을 시작하려는 순간 마주친 눈빛이 있었다. 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이었다. 최영애 소장과의 만남, 성폭력상담소와 민우회가 깊게 만난 것은 바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이다.

여성운동이 용기있는 한 여성의 '외침'을 주목하면서 시작된 이 만남은 참여한 단체와 개인을 더 할 수 없이 강한 자매애, 동료애로 묶어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회의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이 자그만치 80여 차례,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갔겠는가? 그 덕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성폭력상담소는 이보다 먼저 92-93년 2년에 걸친 성폭력추방운동을 통해서 여성단체연합과 연을 맺었다. 성의 상품화와 성폭력의 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이 운동은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성폭력 추방운동의 중심체였던 여성단체연합의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성특위)>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이 운동을 성폭력 문제가 주요 운동과 영역인 회원단체에 넘기며 발전적 해소를 하게 된다. 바로 그 무렵 이른바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이 터진 것이다. 우리는 1심 재판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직장내 성희롱은 성폭력이며, 고용상의 성차별임을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은 대단했다.

내가 생각하는 성폭력상담소 사람들은 이렇다.

그들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분노를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문제를 끌어내어 여성운동의 한 가운데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다. 또 관계회복과 양성평등 운동으로 각 사연의 실타래를 풀어내 성문화를 바꾸고, 드디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노력은 그 동안 성폭력상담소가 참여했던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등 굵직한 성폭력 내용 사업을 통해서, 최근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문제연구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등 여러 부설기구가 벌이는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올해로 성폭력상담소는 창립 8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상담소가 어떻게 자리매김해 갈 것인가를 다시 짚어 볼 때가 된 것 같다.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말이다. 즉 성폭력추방과 양성평등의 성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운동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인권운동, 가정내 폭력 추방운동 등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은 세계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로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에서 여성의 인권문제가 공식거론된 이래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다. UN은 여성폭력의 범주를 크게 가정내 폭력,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국가에 의한 폭력 등 세 범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맥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우리의 여성운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사례이다.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가정내 폭력을 사회문제로 끌어내고 이의 해결방안을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찾고자 하는 운동방향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가정내 폭력과 성폭력과의 깊은 연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상담소의 운동 영역을 여성에 대한 폭력 일반의 문제, 나아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여러 부분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평등문화운동, 미디어운동으로의 영역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



십대매매춘 근절을 위한 거리퍼포먼스

본 상담소와 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프로젝트로 진행한 "십대매매춘 근절을 위한 거리 퍼포먼스"가 5차에 걸쳐 태평로, 광화문, 여의도, 삼성역, 영등포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는 거리 퍼포먼스와 함께 스티커판을 제작,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십대여성이 유흥업소를 비롯해 접대부로 일하게 되는 사회적인 원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십대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십대를 사고 파는 성문화가 변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자유발언대를 통한 시민들의 음성이다.**

10대들

● 정신 좀 차리세요. 때가 어느때든, 이겨씨들 땀에 IMF가 온거예요.

- 어른들이 나빠요
- 우리를 당신과 같은 인간으로 봐주세요
- 나는 암컷이기 전에 한사람의 인간이며 학생이며 인격체입니다.

성인들

- 당신의 자녀를 생각합시다.
- 십대를 서로 팔고 사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됩니다.
- 우리사회 뻣속 깊이 뿌리박힌 성행위 중심 문화, 남성 중심 문화, 권

위적인 문화, 획일적인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영계라면 나이 많은 남성들이 호기심을 갖는 세대가 한심스럽다.
- 우리의 자녀들, 함께 지켜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합시다.
- 당신의 잠시의 쾌락에 딸들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의 잘못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자신을 상품으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십대들의 비뚤어진 생각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은 결국 우리 어른들이며 성을 상품화하는 어른들의 상업주의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해보내기

98년 12월 19일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실시된 한해보내기는 상근자, 간사, 자원활동가(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사회실습생 및 사회봉사생, 자문위원, 발기인 등 70여명의 상담소 식구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마음 편히 웃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날 상담원 이희숙, 나눔이 염주희, 지킴이 이락현이 공로상을, 2만 번째 상담을 받은 지킴이 김정수가 특별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열림터 식구들이 지점토 작품을 만들어 베품시장에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98 세계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사이버토론회

97년에 이어 유니텔과 공동으로 2회째 세계성폭력추방주간기념 사이버토론회가 열렸다.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새로운 성폭력의 유형으로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성폭력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성폭력, 범죄 혹은 도덕적 잘못?/온라인성폭력, 어떻게 해결할까요?] 의 두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토론에는 일반 이용자와 함께 로버트 할리(국제변호사), 문성근(영화배우), 정범구('정범구의 세상읽기' 진행자) 등의 사회 각계 인사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토론회와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 [건강한 통신공간 만들기를 위한 네티즌 전자서명]에는 총 905명이 참여하여 온라인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열림터 퇴소자 집단상담

1998년 12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열림터 퇴소자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퇴소자 5인이 참여하여 첫날에는, 정연옥선생님이 이끄는 집단상담에서 심리극을 통하여 자기체험과 현실적응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날은, 퇴소자와 실습생이 참여한 가운데 노래도 적 전공현과 함께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고평법”, “남녀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적용방향



이미경 (국회의원)

새해 벽두에 여성계는 두 가지 큰 수확을 거두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의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우선 “고평법”의 개정과 “차별금지법”의 제정에서 일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안은 “성희롱” 관련이다. 제정 작업중인 “인권법”에서도 남녀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선언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존의 관련법에서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다. “성희롱”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고평법”과 “차별금지법”의 변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직장 등에서 “성희롱”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만, 실제 입법단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 어디까지를 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논란 끝에 개정된 “고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거나 성희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개념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의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의 징계를 사업주가의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개정법의 1차적인 목적은 “성희롱”의 예방을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방법, 규제

대상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근로자간과 직장 밖에서도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할 경우와, 남성에 의한 여성의 피해가 주이겠지만 여성에 의한 남성의 피해도 규제대상이다. 다만 여성계에서 요구해온 업무와 관련한 제3자(바이어, 고객 등)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제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 및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개념은 “고평법”과 거의 동일하다. “성희롱”을 분명한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고평법”은 5인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범위의 확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성희롱”의 법적 규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안으로 부각되다 보니 개정 “고평법” 중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간접차별”도 금지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개정내용은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보도록 한 것이다. “고평법”이 정착되고,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직접적인 차별대신 여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군대조건, 신체조건,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전근”을 조건화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차별해왔다. 법 개정으로 채용조건에서 키 170cm 이상, 병역필 등을 제시하는 것도 차별여부를 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 두 법의 내용을 한 두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고평법”은 노동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취업단계에서부터 임금·승진, 훈련, 퇴직·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기회, 근로조건 등에서의 성차별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에서의 차별 외에 교육·재화·시설·용역 등의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까지 금지하여 보다 광범위하다.

두 법이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다. 성차별이 대부분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볼 때 여성특별위원회가 권장하게 될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노동부의 업무와 중복되는 영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평법”은 차별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고,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도 일상적인 조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중대한 차별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서 조사 및 시정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여성계가 요구해온 “준사법적 권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특별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에서 볼 때 여성적 관점에서 피해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사건을 양측에 모두 시정신청(진정)을 할 수는 없다. 피해자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한 법률에 의해 진행중인 사건은 다른 한측에서 다시 거론할 수 없다.

이외에 지방의 경우 접근의 용이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고소·고발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기업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바로 형사입건할 수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방조직이 없어 피해자가 접근의 제한성을 느낄 수 있다.

법·제도가 아무리 선진적으로 갖추어져도 적용을 통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당한 차별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해왔던 여성들의 권리확보의식이 철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부당하게 우선 해고 된다는 소문은 무성해도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여성이나 조직은 거의 없다.

권리는 저절로 확보되지 않는다. ☹

1998년도 상담현황분석

본 상담소에서는 1998년 한해동안 <성폭력피해상담의 전문화>를 목표로 <내담자 지원활동 체계화>상담의 질적향상을 위해 상담원의 자질 향상과 재교육에 주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 워크샵,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샵, 상담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조중신 (본 상담소 상담부장)

1) 1991년 4월 개소 이래 98년 12월 31일까지 총 20370회 135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98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2948건으로 97년도 2295건 보다 28.5%, 총 상담횟수는 4285회로 97년도 3424회 보다 25.1% 증가하였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 5년동안 끌어왔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라는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성희롱문제가 다시 대두된 점, 매스컴에서 청소년 성문화·성교육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성관련 상담이 폭주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는 94년부터 본격적으로 24시간 상담을 실시해온 바, 증가하는 상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보이며 실제로 전체의 31% 정도를 야간상담에서 담당하고 있다.

2) 1998년도 상담현황 분석을 통한 특기할 만한 사항

1. 직장내 성폭력 특히 성희롱사건 상담 의뢰 증가(표5 참조)

IMF 체제하에서 여성 우선 해고 조치가 당연한 듯 자행되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나 문제제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부당한 성적요구나 접근, 이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해고나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전업주부들도 생계를 위해 영업판매직, 서비스직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취업이나 고용 또는 고객유치·실적유치 등을 미끼로 성적인 폭행과 희롱이 증가되고 있다. 97년도 216건(강간 114건, 성추행 102건)에 비해 98년도에는 304건(강간 153건, 성추행 151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본 상담소는 IMF형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위기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지원하였고 언론을 통해 실태를 홍보하였다.

또한 2월에 대법원에서 <서울대신교수성희롱사건>이 원심파기 판결이 내려진 후 성희롱피해도 법적인 대응과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성희롱사건의 문의가 많았다. 99년 초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표5〉 성폭력피해에서의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	친족		직장내		동네 사람	데이트 상대	동급생, 선후배	교사, 강사	성직자	기타	모르는 사람	미상	
	부족	인척	상사, 동료	고객									
건수	131	105	38	267	37	246	125	98	82	19	371	472	94
2085건	274			304		(11.8%)	(6.0%)	(4.7%)	(3.9%)	(0.9%)	(17.8%)	(22.6%)	(4.5%)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리라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 지침서 발간을 준비하며 2월말 발간 예정이다. 지침서는 사업주, 관리자, 교육담당자,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직장내 성희롱 관련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2. 유아성추행사건의 심각성 부각(표4참조)

〈표4〉 성폭력피해자의 연령

연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총계
건수	1094	457	314	197	23	2085건
	(52.5%)	(21.9%)	(15.1%)	(9.4%)	(1.1%)	(100%)

97년도에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이 증가하였다면, 98년도에는 학령전 유아의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어린이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학부모들의 대처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학령전 유아의 피해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부모가 인지하고, 어렵게 문제제기를 했다가도 가해자를 지목하기 힘든 형편에서 수사과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유아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안심하고 맡긴 위탁가정, 탁아시설, 유치원, 학원 등 시설내에서나 시설관계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의뢰되어, 상담소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린이를 담당하는 시설과 교육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들이 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촉구하였다.

유형	피해자/가해자 관계	피해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폭력추행	일반강간	아는 사람	아버지	2	50	28	4	1	85(4.1%)	6	
			그외	14	22	21	10	1	68(3.3%)	1	
			친족외 인척	15	9	1			25(1.2%)	6	
			상사/동료	122	8				130(6.3%)	15	
			기타	21	2				23(1.1%)	2	
			동네사람	32	19	23	12		86(4.2%)	19	
		데이트상대	85	30				115(5.5%)	16		
		성직자/신도	9	2				11(0.6%)			
		동급생/선후배	29	26	1	2		58(2.8%)	2		
		교사/강사	12	18	3			33(1.6%)	1		
		기타	73	23	6		1	103(4.9%)	19		
		모르는 사람	75	67	30	6	3	181(8.7%)	37		
	미상	26	17	6	1	7	57(2.8%)	5			
	특수(강도)강간	아는 사람	19	13			1	33(1.6%)	9		
		모르는 사람	41	29	2			72(3.5%)	24		
	강간미수	미상	4	1				5(0.2%)			
		아는 사람	59	4	3		1	67(3.2%)	20		
			모르는 사람	15	3	1		19(0.9%)	7		
			미상		1		1	2(0.1%)			
	성추행	일반성추행	아는 사람	아버지	5	24	7	10		46(2.2%)	2
				그외	3	3	15	15	1	37(1.8%)	
				친족외 인척	5	2	3	3		13(0.6%)	
				상사/동료	135	2				137(6.3%)	9
				기타	13	1				14(0.7%)	1
동네사람				15	8	68	69		160(7.7%)	25	
데이트상대			10					10(0.5%)			
성직자/신도			6	1	1			8(0.4%)			
동급생/선후배			21	5	9	5		40(1.9%)	1		
교사/강사			12	16	6	15		49(2.4%)	2		
기타			57	3	10	8		78(3.7%)	11		
모르는 사람			39	10	51	28	1	129(6.2%)	16		
미상		4	1	10	4	1	20(0.9%)	4			
직접언어추행		아는 사람	33	1				34(1.6%)			
		모르는 사람	7					7(0.3%)			
			미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는 사람	17	1	1			19(0.9%)	1		
		모르는 사람	32	4	1		4	41(2.0%)			
			미상	5	2			7(0.3%)			
남성피해		아는 사람	20	11	3	3		37(1.8%)	2		
		모르는 사람	2	18	2	1		23(1.1%)			
			미상		2	1		3(0.1%)			
계			1094	457	314	197	23	2085	263		
			(52.5%)	(21.9%)	(15.1%)	(9.4%)	(1.1%)	(100%)	(12.6%)		

성관련상담(순결/처녀막/임신/낙태/자위등)	217	137	15	7	16	392	4
기타(스토킹/가정폭력/학원폭력/장난전화등)	325	131	5	0	10	471	
계	542	268	20	7	26	863	4

1 차 상담 총계	1636	725	334	204	49	2948	267
-----------	------	-----	-----	-----	----	------	-----

재상담	강간	415	280	108	16	7	826	15
	강간미수	39	12	16	9	0	76	5
	성추행(남성피해 제외)	116	47	103	87	1	354	6
	남성피해	10	8	2	2	0	22	1
	기타	48	9	1	1	0	59	0
계	628	356	230	115	8	1337	27	

총계	2264	1081	564	319	57	4285	294
----	------	------	-----	-----	----	------	-----

〈표1〉 98년도 상담 유형분류 통계

3. 후유증 심리상담의 증가

모든 성폭력피해는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주고 그 후유증은 일생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어린시절 친족 내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성장과정 전반 생활전반에 지장을 주고 있다. 98년 하반기에 시인 박서원씨 등 성폭력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생존자들의 용기있는 작업이 잇달았고 이를 매스컴에서 크게 다룬 후 어린시절의 피해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오랜 세월동안

고통받고 있는 2,30대 여성피해자들의 상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심리 치유상담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소에서는 99년에 후유증심리상담의 전문화에 주력, 후유증 상담사례연구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스토킹에 관한 문의 증가(표1 참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따라 다니며 심적 부담과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신체적인 접근과 상해가 있는 경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 편지 등에 대하여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했지만 스토킹은 해당법규가 없어 대책이 막연했다. 98년 하반기 이후 매스컴에서 스토킹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면서 그동안 속수무책이던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고 있다. 스토킹 상담은 전체 상담의 10% (11월 22/277, 12월 25/263)에 달하며 피해 내용도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본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법률자문위원들과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위해 협의,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5. 성관련 상담의 증가(표1 참조)

98년도 성관련상담은 392건, 전체 2948건 중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상담소는 성폭력을 양산하는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99년 성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준비작업을 거쳐 2000년대에는, 성에 대한 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성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6. 성직자 성추행사건 심각성 부각(표5 참조)

그동안 교회내, 절, 성당, 사이버 종교단체 등에서 성직자에 의한 사건이 끊임없이 대두되어왔다. 나이, 성별, 지위의 복잡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 성폭력만 큼이나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신앙을 빙자하여 성령을 준다거나, 안수, 안찰을 해주며 병을 낫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성직자의 가해사건은 조직에서의 특수한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무시되고 은폐되어 왔다. 본 상담소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적대응을 지원해왔고 해당 종교단체에 항의와 조정을 촉구해왔다. 또한 기독교여성상담소 주관의 심포지움을 통해 그동안의 사례를 취합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

〈표3〉 내담자의 상담내용

상담내용	강 간		강간미수	성추행			기 타	총 계
	강간	특수 강간		성 추행	언어 추행	남성 피해		
건 수	975	110	88	741	108	63	863	2948
재상담	826		76	354		22	59	1337
총횟수	1911		164	1288			922	4285

〈표2〉 98년도 전체 지원현황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상담횟수	183	332	440	390	312	367	422	324	372	384	395	364	4285
상담건수	126	231	272	291	206	243	308	217	233	281	277	263	2948
재상담	57	101	168	99	106	124	114	107	139	103	118	101	1337
면접상담	4	27	54	18	25	28	35	17	34	13	24	21	300
서신상담			4		1	5	3	6	0	1	1	1	22
PC상담			2	18	8	14	17	6	11	9	14	16	115
병원연계	5	9	16	12	14	11	30	10	15	20	10	17	169
고소건	10(1)	22(2)	28(5)	25(1)	18(4)	36(1)	44(4)	29(3)	28	25(1)	9(1)	21(2)	295(27)
경찰연계	4	6	15	10	3	7	8	4	4	3	4	4	72
토요법률상담	2	17	12	6	9	8	9	6	16	11	9	6	111
법정지원		1	1		1		1	2	3	1	2	1	13
진정서승부		1	2			2		1				1	7
자료지원	3	18	14	6	10	10	12	9	18	14	10	18	142

열림터

김병숙 (본 상담소 열림터 부장)

친부, 양부, 친오빠, 형부 등 친족과 동네사람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하여 보호시설인 열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98년 한해동안 25명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여성 피해자와 3명의 가족이 이용했고, 이 중 어린이, 청소년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개인상담, 집단상담, 성교육, 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후유증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친 후 다른 보호시설이나 새로운 가정으로 복귀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근친강간 피해자로 유아 및 아동기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에 노출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르면 강간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아(7세 미만)가 강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피해유형은 강간 92%, 성추행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열림터 내담자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수사의뢰, 고소 고발시 경찰지원, 검찰지원, 병원지원, 심리상담, 훈련학습 등이 있고 훈련학습의 내용은 주로 미술치료, 성교육, 학습, 야외놀이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 유형 및 연령, 가해자 유형, 지원내용, 상담후 조치결과 내용은 오른쪽 표와 같다.

피해자 유형 및 연령,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계	피해자유형		가해자유형				피해자연령			
	강 간	성추행	근친 3촌이내	이웃	모르는 사람	기타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25	23(92%)	2(8%)	21(84%)	1(4%)	1(4%)	3(12%)	1(4%)	5(20%)	15(60%)	4(16%)

(*계 25명은 98년 입소자 인원)

지원내용

(단위 : 횟수)

지원내용(건수)	수사의뢰	고소고발	병원지원	전문심리상담	훈련학습	기 타
942	11	4	88	111	699	검찰지원/경찰지원

(98년 내담자 지원현황중 훈련학습이 학습, 미술치료, 성교육, 영어, 야외학습 등이 포함)

상담 후 조치 및 결과

(단위 : 명)

계	피해자				가해자			
	상담후기가	치료기가	복지시설입소	현재입소중	계	고소고발	선도면담	기 타
28	13	5	7	3	4	4		

(*계 28명은 98년 퇴소자 인원)

법률상담 5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가중처벌, 친족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98년 1월 1일 모습을 달리한 성폭력특별법이 98년 12월 28일 다시 한 번 개정작업을 거치게 되었다. 97년 이후 백화점 화장실, 숙박시설, 학교 화장실, 가정집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사건들이 터져나왔는데 이러한 몰래카메라 사건들은 여성의 몸을 주 대상으로 삼으면서 어디에서도 사적 공간이 담보될 수 없다는 불안감과 불쾌감을 갖게 하고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성폭력범죄로 규정.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상담소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1991년 개소 되고 2만 여회의 상담을 해 오는 동안 상담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아간상담원 이락현,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장철우, 98년 한 해동안 4285회 상담 중 382회로 가장 많은 상담을 해오신 상담원 이희숙. 이번 호 <삶 이야기>에서는 상담소에서의 그분들의 삶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호흡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하나.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둘.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셋.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넷. 앞으로의 계획은
 다섯.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락현(4기 아간상담원)

이야기 하나. 1995년 초에 '세계일보'에 실린 노주희 선생님(상담소 前 상근자) 글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곧 4기 지킴이 모집기사가 있어서 바로 지원했습니다.

둘. 피해 받는 여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지킴이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과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셋. 여성 현실에 대해 더 큰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는 것임을 상담과 토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든 것도 변화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 내년에 졸업을 하고 편입을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취직을 하더라도 상담소와의 인연은 계속됐으면 합니다.

다섯. 감사해요 밤을 지새며 좋은 사람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지킴이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나아져서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성폭력이 없어지고 남녀평등이 이루어져 상담소가 문을 닫는(?) 행복한 순간이 왔으면...

이희숙(6기 상담원 : 현 책임상담원)

이야기 하나. 딸이 어느정도 크면서 나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우연히 상담원 모집 광고를 보고 순전히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미심장하게 어떻게 상담소에 다니게 되었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기대(?)에 못미치는 싱거운 답을 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든답니다.

둘. 어렵고 힘든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버팀목이 되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다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삶을 좀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폭넓은 인생 경험을 하는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움을 느낍니다.

셋. 일상적이고 소비지향적인 내 속에서 여성으로의 자각과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회적 통념에 갇혀져 살아

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여성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감으로 다시 나의 안전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꼈지만 나 또한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넷. 아직도 나의 껍질을 다 깨진 못했지만 되도록 편견없이 유연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앞으로 더 나은 상담을 위해 스터디 활동이나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다섯.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러 면에서 나 자신을 많이 성장시켜준 곳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정적으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상담소 식구들을 보면서 나의 나태함과 이기적인 태도를 많이 반성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자극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담소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 센터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장철우(변호사 : 토요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야기 하나. 4년전 당시 상담소에서 일하시던 변혜정 선생님(상담소 前 상근자)이 제 아내와 친구였던 관계로 변선생님의 요청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늘 뭔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던 차였습니다. 물론 되돌아 보면 별로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상담소의 뚜렷한 목적과 사회적 기여에 깊이 공감하며 나름대로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컸던 것 같습니다.

둘. 때로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및 가해자 처벌에 미흡하고 부족하기만 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속에서나마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내 노력에 비해 크게 얻은 보람이자 기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 그동안 토요법률상담을 하면서 주위의 많은 여성들이 당해온 피해와 고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 보며 나 자신이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넷+다섯. 근래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법적·제도적 장치도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는 것은 기대해왔던 바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며, 거기에 우리 상담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담소가 더욱 크게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줄 바라며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

대중음악과 여성

황옥주 (음악 칼럼니스트)

영화는 내러티브와 영상의 예술이며 음악은 캐릭터와 사운드의 예술이다. 영화에서 스타는 잘 쓰여진 시나리오와 카메라 워킹으로 탄생하지만 대중음악의 스타는 경험 많은 프로듀서와 매니지먼트에 의해 탄생된다. 많은 해외 스타의 회고담 중에 ‘그가 벤츠를 타고 지나갈 때 나는 마침 그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로듀서나 매니저가 예비 스타를 픽업하는 과정은 중요한 일차관문이다.

대중음악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음악 작품의 내용, 즉 내러티브(가사)의 분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술적 작업의 산물인 음악이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과정을 거쳐 CD라는 상품의 상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또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알려지고 레코드샵에 깔려 대다수 대중 소비자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주도하는 남성 중심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작품성, 예술성은 사라지고 예쁘게 포장된 대량복제품들만이 음반 시장의 대다수를 점령하고있는 현재 국내 대중음악계의 상황상 작품이나 경향의 분석 따윈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한 곡당 수백, 많게는 천만원 단위의 사례금을 받는 몇몇 히트 작곡가, 작사가들에 의해 철저한 상업적 계산 속에 만들어진(또는 표절된) 노래가, 방송국 PD들과 수익단위의 로비자금으로 결탁한 몇몇 음반제작자, 매니저들에 의해 음반화되고, 또한 급조된 미소년 미소녀 댄스 그룹들에 의해 불리워져 대중적 히트곡으로 떠오르는 현실. 사실 국내 대중음악의 중심 줄기나 흐름을 파악하려면 이들 주도권을 가진 몇몇 사람의 성향이나 사고구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여가수가 몸을 이루어도 여성의 노래는 없다

소위 언더그라운드 성향을 가진 음반 기획자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가면 항상 화제에 오르는 자조 섞인 농담 하나. 우리나라 음악계가 바뀌려면, 일단 여의도 방송국을 폭파시키고 악덕 메이저 음반제작자들을 모두 한 비행기에 태워 국외로 추방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장난삼아 내뱉는 말일 뿐이지만 그만큼 방송가와 기존 음반제작자들이 검은 돈을 통해 맺고있는 결탁관계, 음반업계에서 차지하는 기득권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대부분 남성들, 게다가 사회 기득권 층인 보수파들로 이루어진 이들의 구락부에 돈없고 뺨없는 여성들은 끼어들 틈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매니지먼트야말로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분야고 여가수들에게는 여자 매니저가 적격이겠지만 실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수십년동안 남자들 위주로 짜여져온 판이니만큼 여성들은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한다. 많은 (남자)방송국 PD, (남자)기자들에게 가수를 홍보해야 하는 매니저만 해도 업무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친밀감 맺기.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로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남성 구락부’인 룸싸롱과 사우나장이다 보니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비슷한 류의 부담감은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여기자들에게도 주어진다. 더 많은 정보 접근권을 전제로 한 육체적인 유혹도 그 중 하나. 가요계의 실력파 기자로 군림할 수 있는 성공의 지름길이라 동요도 따르기 마련이다. 권력을 가진 매니저 또는 PD와 그렇지 못한 여가수 사이의 관계



는 보다 강제적인 양상을 띤다. 여가수를 키우려면 먼저 몸부터 빼앗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진실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육체적인 관계는 상품 가치를 높여놓은 가수를 다른 매니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으로 여겨진다.

사실 누구에게나 성과 사랑은 사생활의 영역이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면에서, 게다가 24시간 얼굴을 맞대고 고락을 함께 나누는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면에서 무리한 일반화는 순수한 관계를 모독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만해도 자신의 소속사인 소니 뮤직의 사장을 전남편으로 두었고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캐나다 출신 가수 셀린느 디옹,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장혜진도 자신의 매니저와 결혼을 해 가정과 일의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치밀함도 보여준다.

그러나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요계에서 어떤 여가수가 대중 앞에 나설 것이냐는 일단 어떤 여가수를 스카웃하느냐로 결정내려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모든 것이 선택되어질 경우 성적인 매력에 있느냐 아니냐는 그녀의 성공을 가능하는 일차적인 잣대로 작용한다. 또한 TV를 시청하는 대다수 남성들에게 섹시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여가수들의 사고와 행동을 강제한다.

그러므로 실력있는 여가수들이 대거 등장해 연말 방송가의 가요대상을 휩쓸다해도 엄청난 음반 판매고를 올려 최고 가수의 자리에 오른다해도 대중음악계의 진정한 '우먼 파워'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들의 예쁜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그 배후를 차지하고있는 닳고 닳은 작곡, 작사가, 음반제작자들의 목소리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음악 속의 여성상 - 미녀 對 추녀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70년대 트로트나 90년대 말의 댄스 음악이나 그 속에 그려진 여성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사랑 밖에 난 몰라' 류의 수동적인 여성상은 힙합(Hip-Hop) 패션에 다리를 건어 붙이고 허리를 비틀며 뽀박질 춤을 추는 신세대 여가수들의 노래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일례로 최근 신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ES의 노래를 들어보자. 'I'm your girl'을 속삭이며 너를 닮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다가 달콤한 단어만 준비하면 된다며 처음 만난 날부터 오직 너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자신을 꿈꾸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부끄럽게 지금 내가 입맞추는 순간이 자신에게 정말 처음이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중음악 대대로 여성은 미녀 또는 추녀로 명쾌하게 분류되어왔다. 그 중 최고는 물론 몸매 좋고 얼굴 예쁜 여성. 그러나 이런 여자들

은 열이면 열 모두 성격 결함이다 지능이 모자라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반면 다리 짧고 못 생긴 여성은 똑똑하거나 마음씨가 고을 확률이 높고 대개는 채일 염려가 없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될 수 없는 다른 유형으로는 우선 천사의 유형이 있다. 천사처럼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요절해서 하늘나라로 날아가 천사가 된다는 말이다. 심금을 울리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매년 병으로 또는 갖가지 사고로 인해 하늘로 승천해야 하는지. 또 다른 유형으로는 가냘픈 몸과 초췌한 얼굴로 종종 술에 취해서 남성의 품에 안기곤 하는 '사랑의 실패자'. 힘들 때마다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위로 받고 때로는 그들에게 구원 받기도 한다. 그의 소수이기는 하지만 '팜므 파탈(Femme fatale)'로 사랑의 배신을 견디지

못해 생의 목표를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바치는 여성상도 존재한다. 물론 남자가 피로워 하면 다시 착한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이슬이슬하고 촉촉하게 이 눈빛, 이 손길로 오늘 밤 그대를 유혹하고 싶다면 은밀하면서도 상당히 노골적인 제안을 하는 성숙한(?) 여성상도 있다.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고 싶어 안달이 나기라도 한 것처럼 대중가요 속에서 보여지는

여성엔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결국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남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여성' 일 뿐이다.

여성에 대한 굴절되고 왜곡된 시선이 유독 대중가요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가요는 말 그대로 대중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그 영향력 또한 팬(Fan) 문화의 변화와 함께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절대로 가볍게 듣고 넘길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 역시 그리 쉽지만은 않을 듯 하다. 남성 중심으로 편재된 대중음악계의 전반적 구조 개편이야말로 그 해법이기 때문이다. ☹

(가사 유형 분류: 이화여대 불문과 이봄이)



상담소(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숙, 손혜미, 오희옥, 유자인, 윤정순, 이미경, 이소연, 임순영, 장윤경, 정유석, 조용민, 조중신, Foodbank(박금옥)

새로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이명자, 이선아, 이은정, 이정효, 전경림

나눔터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계간 [나눔터]를 보시려면 연 6,000원을 송금하신 후 상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민 : 009-01-1176-632(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후원)회비 계좌이체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후원)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후원금은 현재 지로로 납부가 되고 있으나, 계좌이체를 신청하여 주시면 (후원)회원님께서 매번 은행에 가서 지로로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은 물론, 지로로 납부할 때 본 상담소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와 발송료가 절약되어 저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후원)회원님께서 신분증, 본인통장, 통장도장, 비밀번호, 상담소 계좌번호를 가지고 은행에 한 번만 가서 신청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님께서 약정해주신 금액이 저희상담소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 개설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하신 후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일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의환은행	224-22-02532-8
상업은행	441-04-107528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비디오와 자료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아직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있니?



건강한 성규범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끄는 성교육이 부재한 환경 속에서 온갖 일탈적인 성문화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작된 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왜곡된 의사소통이 성폭력이라는 무서운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토론자료가 담긴 팸플릿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구입문의: 박미숙 부장/(02)576-7128